불교의례, 생명과 역사를 어루만지다

가을이면 전국 사찰마다 다양한 법석이 펼쳐진다. 물과 육지를 떠도는 시방세계 일체중생을 도량에 모셔 불법(佛法)을 설하고 공양을 베푸는 수륙재(水陸齋)와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는 법회인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는 음악 · 무용 · 미술 · 공예가 어우러진 한국 불교의 전통 종합예술이자 참회와 수행의 장이다. 불교의례와 정신을 계승하는 법회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진관사 국행수륙재로 '광복 80년' 순국선열 추모

10월 25일, 수륙재 기념식 개최
광복 80년 맞아 순국선열 추모
"수륙재로 국가 안녕–국민 평안"
종정 성파 스님 법문 회향 법문



스님과 신도 대중들이 진관사 일주문 밖 시련소에서 인연 있는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 의식을 하고 있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국행수륙재로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진관사와 진관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 25일 '진관사 수륙재 개건 627주년 기념, 2025 진관사 수륙재'와 기념식을 봉행했다.

올해 수륙재는 '광복 80년, 온 세상을 비추는 감사의 기도'를 주제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관사는 지난 9월 7일 수륙재에 입재해 국가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49일간의 일정을 이어 왔다.

기념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1만8564명과 미발굴 독립유공자, 집현전 학사 6명의 위패를 모시는 의식이 진행됐다. 특히 백초월 스님의 증손 백외식 씨가 스님의 위패를 직접 봉안해 눈길을 끌었다.

수륙재가 담고 있는 '법식(法食)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관사와 백초월스님선양회는 '칠칠곡의 쌀' 2000kg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기금 3000만원을 광복회에 전달했다.

법해 스님은 "진관사 수륙재는 화합과 상생으로 원수와 친한 이가 평등하게 은혜를 베풀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지혜를 증득하는 거룩한 만남의 장"이라며 "이번 수륙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숭고한 선열들의 공덕을 기리는 자리이자 내일을 여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진관사 수륙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수륙재가 한국불교의 의례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비와 평등, 화합과 상생을 구현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627년 세월을 이어 온 서울 유일의 왕실 수륙재"라고 의미를 짚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올해 진관사 수륙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 번영과 국민 평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축사했다.

기념식에 이어 낮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어산종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재주(齋主)·법인(法印)을, 주지 법해 스님이 병법(秉法)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일주문 밖에 마련된 시련소에서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侍輦) 의식을 봉행했다. 이어 영가를 도량으로 모시는 대령(對靈)과 관욕,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법문의 순서로 수륙재가 설행됐다.

이날 법문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당하(當下): 바로 지금 여기'를 주제로 가르침을 전했다. 성파 스님은 "진관사 수륙대재는 무주 유주의 고혼을 다 초청해 부처님의 법문으로 이고득락하게 하는 자리로, 세계 인류를 대표하는 특별한 무형문화유산이자 오늘날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호국불교"라고 설했다.

10월 26일 밤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을 증명하는 수륙연기와 사자를 청해 공양 올리는 사자단,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황제들을 청해 공양 올리는 오로단, 상단·중단·하단소청, 상단·중단권동, 하단시식, 봉송회향의 순서로 설행됐다.

여수령 기자
기사 전문보기▶

진관사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627년 전통의 왕실 수륙재다. 조선 태조가 1397년 진관사에 수륙사(水陸社)를 건립하고 왕실의 안녕과 백성의 안락을 기원하며 수륙재를 봉행한 것을 계승하고 있다. 한국전쟁 등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1977년 자운 스님과 진관 스님의 원력으로 다시 봉행되기 시작해 2013년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됐다.

조선 시대 전통적인 수륙재인 칠칠재(七七齋) 형식으로, 낮에 지내는 '낮재'와 밤에 지내는 '밤재'의 이부(二部) 구성을 전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낮재에서는 수륙재 설판재자와 동참재자 등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환희로운 깨우침의 법문을 들려주는 법석이다. 밤재는 온 세계와 세상의 존재들을 위해 법의 공양을 베푸는 연회다.

봉은사, 국가유산 지정 후 첫 '생전예수재' 설행

10월 28~29일 회향식 봉행
9월 11일 입재 후 49일 정진
원명 스님 "육바라밀 실천"
국가유산청, 유산 지정서 전달


국가유산청은 10월 28일 서울 봉은사에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가운데)과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국장(오른쪽).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공덕을 닦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를 회향하며 육바라밀 실천을 발원했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올해 7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설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봉은사와 봉은사 생전예수재보존회는 10월 28일과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28일 회향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봉은사 생전예수재 어장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종장) 집전으로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신중작법, 괘불·불패 이운, 도량건립, 사자단, 법요식, 금강경 합송, 상단 증명단 순으로 거행됐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중단 시왕단, 고사단, 함합소, 마구단, 시식, 봉송회향이 이어졌다.

앞서 봉은사는 9월 11일 생전예수재에 입재해 매주 수요일 보시(초재), 지계(2재), 인욕(3재), 정진(4재), 선정(5재), 지혜(6재)를 주제로 49일간 정진해 왔다. 10월 14일에는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는 곳인 명부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에 생명을 불어넣는 택전점안의식도 진행했다.

인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처음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설행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여법하게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의 의미를 설명하며 육바라밀 실천으로 진정한 행복에 다가가길 기원했다.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공덕을 닦는 의례"라며 "참회와 선업의 실천이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바라밀 수행은 나와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보시와 지계, 인욕을 바탕으로 성불의 삶을 열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서를 봉은사에 전달했다.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국장은 "생전예수재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던 건 봉은사 사부대중의 헌신과 삶과 수행을 일치시키려는 불자들의 신심 덕분"이라며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불교 의례의 가치가 후대까지 온전히 이어지길 바란다. 국가유산청도 불교 의례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를 포함한 모든 불교 의례의 가치가 인정돼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위상을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기사 전문보기▶

봉은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돼 조선 중기에 성행한 불교 의례다. 〈동국세시기〉에는 '경기도 광주 봉은사(현재의 봉은사)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불공을 드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봉은사는 1993년부터 신행운동으로 생전예수재를 이어 왔으며, 2016년 원명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윤달에 한해 간소히 설행되던 예수재를 전통의례로 복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를 설립했고, 2019년 10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생전예수재의 역사적 · 불교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명한 결과 올해 7월 15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일체 업보 참회합니다"

10월 29일 경내 대적광전 일원서
종정 운경 스님 등 500여 명 동참
참여 대중 국태민안 · 업장소멸 발원
상진 스님 "불교유산 전승에 최선"


삼보의 가지력에 의지해 영가들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는 관욕 의식에서 보존회장 상진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삼증사가 수인을 맺고 있다.

국태민안과 현생 업장 소멸을 발원하기 위한 법석이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에서 펼쳐졌다.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회장 상진 스님, 이하 보존회)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10월 29일 청련사 대적광전과 명부전 일원에서 '국태민안과 삼세인과 소멸을 위한 청련사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청련사 생전예수재의 어장과 법주는 보존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청련사 회주)이 맡았으며 보존회 회원 60여 명이 의식 설행에 동참했다. 또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바른 삶을 살길 발원한 500여 사부대중도 함께했다.

생전예수재는 도량을 옹호해 줄 호법성중을 모시는 시련과 설판재자의 제영가와 일체 고혼 영가를 맞이하는 재대령, 삼보의 가지력에 의지해 영가들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는 관욕이 진행됐다.

이어 〈화엄경〉 '세주묘엄품'에 등장하는 천신과 성중 104위에게 수행자를 보살피고 도량을 수호해 불사가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신중작법, 법회의 주인공인 부처님을 예수도량 중정으로 모시는 괘불이운, 지전을 명부에서 쓸 수 있는 재화로 만드는 조전점안, 경함에 경전을 이운하는 경함이운, 불보살과 성현에서 공양을 올리는 운수상단 등이 거행됐다.

이어진 예수시왕생칠재 본식은 소청사자, 봉송사자, 소청 중위, 소청고사, 마구단 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경신봉송, 봉송회향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식 동참 대중은 스스로 참회하며 삼업을 청정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법상에 오른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재(齋)의 중요성을 설하며 "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도 이익되고 타인도 이익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이루는 것"이라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공양을 올리는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내가 잘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2022년 역사적 가치와 전통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청련사는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계승해 불교문화의 가치를 끊임없이 이어감은 물론, 민족의 유산이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양주시의 자랑인 청련사 생전예수재가 자신과 세상을 맑고 밝게 정화하는 인류문화자산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주=신중일 기자
기사 전문보기▶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豫修十王生七齋)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는 조선의 비보사찰이자 왕생발원사찰인 청련사에서 왕실과 국태민안을 발원하며 봉행해 온 의식이다. 근현대 경제어산 동교(東郊)파 소속으로 능해, 덕봉, 청호, 춘담, 벽파, 백우, 상진 스님이 계보를 이어 오고 있다. 1960년대부터 스님들이 범패와 작법, 장엄으로 생전예수재를 봉행하며 수 대에 걸쳐 의식을 이어 온 역사성을 인정받아 2022년 5월 경기도 무형유산에,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지정됐다.

매년 9월 9일 중양절에 칠칠재로 회향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자신의 업장을 닦고 조상 영가를 위해 제수를 올려 효행을 실천한다.